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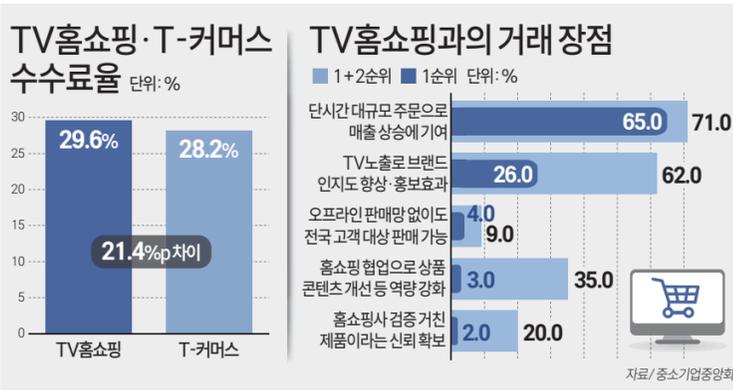
“팔아도 남는 게 없다”... 중소기업인들, 홈쇼핑 수수료 부담

중기중앙회, 856곳 애로 실태조사
홈쇼핑 수수료 29.6% 수준
T-커머스도 28.2% 달해
채널 간 격차 1.4%p 불과
공영·KT쇼핑 ‘최저 수수료’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가 절실한데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TV홈쇼핑과 T-커머스 수수료는 평균 25~30%로 부담이 여전했다. 생방송을 하는 TV홈쇼핑과 녹화방송을 하는 T-커머스의 수수료 차이는 고작 1.4%포인트(p)에 그쳤다.

재고부담이 없어 중소기업 등 판매자에게 유리한 ‘직매입’ 비중은 전체 상품의 5%가 채 되지 않았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TV홈쇼핑, T-커머스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856개사를 대상으로 ‘거래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17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 100곳은 TV홈쇼핑과 T-커머스를 모두 거래하고 있는 곳들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판매액 대비 평균 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9.6%, T-커머스가 28.2%로 각각 나타났다. 평균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곳은 TV홈쇼핑 중에선 공영홈쇼핑(25%), T-커머스 중에선 KT쇼핑

(25.4%) 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상품군에 따라 수수료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TV홈쇼핑과 T-커머스 모두 평균 30%에 달하는 수수료율 부담은 중소기업의 마진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TV홈쇼핑·T-커머스 동시 이용 기업의 경우 정률제 적용에 따른 평균 수

료율은 ‘30% 이상’이라고 답변한 기업이 60.9%로 가장 많았다. ‘20~29% 사이’라는 답변은 33.7%였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4년 기준 TV홈쇼핑의 실질수수료율(배송비 포함)은 GS(29.9%), CJ(29.6%), 롯데(28.9%), 현대·NS(28.7%), 홈앤쇼핑(22.8%), 공영(19.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직접계약시 가장 보편적인 거래방식은 두 판매 채널 모두 ‘위·수탁’이 76% 가량을 차지했다.

유통벤더사와의 계약시에는 ‘위·수탁/특약매입’ 방식이 각각 9.8%(TV홈쇼핑), 11.9%(T-커머스)로 2~4.5% 수준인 ‘직매입’ 방식보다 많았다.

조사에 따르면 TV홈쇼핑과 T-커머스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의 70% 이상은 거래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절반 이상은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들이 생각하는 거래상 가장 큰 장점은 TV홈쇼핑의 경우 ‘단시간에 대규모 주문이 발생해 매출 상승에 기여’, T-커머스는 ‘시간 제약이 없어 자유로운 거래 가능’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4년 기준 전년보다 거래비용 부담이 늘었다는 응답도 TV홈쇼핑이 42.5%, T-커머스가 42.3%였다. 실제 TV홈쇼핑과 T-커머스와 거래에서 최대 단점으로 ‘판매수수료 같은 과도한 비용 지급’이 꼽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TV홈쇼핑과 T-커머스는 중·소상공인의 핵심 판로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 송출수수료 증가 등으로 거래비용 부담은 여전하다”며 “중·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 등으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포스코그룹, 철광석·가스로 벌고 리튬·니켈·흑연 투자확대

철광석·가스 수익 창출 지속
아르헨 리튬 상업화 가시권
배터리 원료 투자 확대 본격화

포스코그룹이 철광석·가스 등 기존 자원 자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이어가는 가운데 리튬·니켈·흑연 등 배터리 원료 투자도 확대하며 자원개발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 기존 수익 자산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래 핵심 광물 확보에도 보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17일 포스코홀딩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로이힐 투자에서 약 2138억원의 배당을 받았고, 약 1613억원의 지분법 이익도 반영했다. 포스코홀딩스가 지분 12.5%를 보유한 호주서



호주 로이힐(Roy Hill) 광산에서 철광석을 채굴해 적재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호주 지역 로이힐 철광석 광산은 연간 6000만톤 이상의 철광석을 생산하는 대형 광산으로, 포스코는 이 가운데 약

20%를 조달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2010년 약 1조3000억원을 투자해 지분을 확보했으며, 2023년 10월 누적 배당과 철광석 구매 할인 효과를 합쳐 투자비 전액을 회수했다.

가스 사업도 안정적인 수익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호주 가스전 자회사 세넥스홀딩스는 지난해 매출 약 3922억원, 당기순이익 약 281억원을 기록했다. 미안마 가스전 역시 핵심 자산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안마 해상 A-1·A-3 광구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중국 CNUOC에 약 30년간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지분 51%를 보유한 운영권자로서 생산과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 현재 4단계 개발

이 진행 중이며 오는 2027년 3분기 신규 생산 개시가 목표다.

원료탄과 철광석 공급망도 유지되고 있다. 캐나다 그린힐스 광산은 원료탄 통합광산법인인 EVR 지분 형태로 전환돼 공급 기반을 이어가고 있으며, 캐나다 철광석 광산 AMMC 투자에서는 지난해 약 952억원의 지분법 이익이 반영됐다.

이 같은 기존 자산의 기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원개발의 범위가 배터리 원료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사업은 상업화 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다. 1단계 공장은 준공을 마쳤으며 이달 말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초기 가동률은 약 60% 수준에서 출발해 3분기

이후 정상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2단계 역시 연내 준공이 추진되고 있다.

리튬 확보와 가공 체계 구축도 병행되고 있다. 호주 리튬광산 지분 투자는 상반기 내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후 광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지분법 손익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포스코아르헨티나의 LIS 리튬 자원 인수, 미국 유타주 리튬 직접추출(DLE) 데모 플랜트 구축, 아르헨티나 2단계 상공정, 포스코리튬솔루션 2단계 하공정 등에 대한 투자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순천 수산화리튬 공장을 중심으로 하공정 투자가 이어지며 염호·광산 자원과 연계한 리튬 밸류체인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SK네트웍스
민팅 지분 90% 매각

AI 중심 사업지주회사 전환 속도

SK네트웍스가 중고폰 거래 회사인 ‘민팅’ 지분을 국내 유망 중소·중견기업 전문 투자사인 티앤케이 프라이빗에쿼티에 양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무구조 기반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견고히 하고, 인공지능(AI) 중심 사업지주회사로의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SK네트웍스는 최근 민팅 지분 90%를 티앤케이 프라이빗에쿼티에 450억원의 금액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인허가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거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SK네트웍스 정보통신사업부 산하중고폰 사업 브랜드로 정보통신기기 리사이클 문화 조성을 통한 ESG 경영에 기여했던 민팅은 2021년 독립 분사했으며, 전국 대형마트와 공공기관, 통신대리점 등 주요 생활거점에서 ‘민팅 ATM’을 통해 중고폰 무인 거래를 이끌어왔다. /차현정 기자 hyeon@

고려아연, 양자컴 핵심소재 ‘인듐’ 부각

국내 유일 생산...美 수입량 30% 공급

고려아연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전략 광물 중 하나인 ‘인듐’이 최근 급부상하는 양자컴퓨터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인듐 수입량을 30%를 공급하는 등 한미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 광물이자 글로벌 첨단산업 공급망의 중추로 부상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양자컴퓨터 산업이 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핵심 소재인 인듐의 전략적 가치도 높아졌다. 원자재 시장조사 전문기관 패스트마켓 M B 통계에 따르면 2026년 3월 인듐 시장 평균가격은 kg당 725달러로 1년 전인 2025년 3월 평균 392달러 대비 약 85% 상승했다.

학계에 따르면 양자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QPU(양자처리장치) 칩셋의 커넥터를 만드는 데 인듐이 필요하다. 인화인듐(InP)은 포토닉 집적회로(PI

C)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재료로 거론된다. 양자컴퓨터의 성능 고도화와 상용화가 진전될수록 인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듐을 생산하는 고려아연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고려아연은 아연·연·동 통합공정을 활용한 희소금속 농축·회수 기술로 99.999%의 고순도 인듐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윤범 회장 취임 후 전략광물 생산량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과 화수율 증대 등에 주력하면서 연평균 90~100톤 수준으로 인듐 생산량을 끌어올렸으며, 2025년 기준으로 연간 97톤을 생산했다.

이를 통해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관계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고려아연은 미 정부와 협력해 테네시에 첨단 전략 산업을 지원할 비철금속 재련소를 세우기로 했다. 사실상 고려아연이 미 첨단산업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핵심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양성운 기자 ysw@

SK인텔릭스, ‘나무엑스’ 기능 고도화

음성명령으로 사용자 따라 이동

SK인텔릭스가 웰니스 로보틱스 ‘나무엑스(NAMUHX)’에 사용자를 인식, 따라 이동하는 ‘팔로우 미(Follow Me)’ 등 신기능을 추가했다.

17일 SK인텔릭스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팔로우 미(Follow Me)’ 기능은 로봇이 사용자를 실시간으로 인식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 이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와이파이 연결과 별도의 터치 없이 음성 명령만으로 제품을 동작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하이 나무, 나를 따라와”라고 말하면 마치 반려동물처럼 사용자의 발 움직임을 인식해 뒤따라 이동한다.

이를 통해 제품을 직접 옮기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공간에서 에어솔루션(Air Solution)을 통한 공기질 관리와 바이탈 사인 체크(Vital Sign Check) 등 다양한 웰니스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



‘팔로우 미’ 기능으로 사용자를 인식해 따라 이동하는 웰니스 로보틱스 나무엑스. /SK인텔릭스

능을 활용해 청소기를 사용하거나, 요리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에어 쉴드(Air Shield)’ 기능도 지원해 더욱 효율적으로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다.

이밖에 ‘복약 알림 기능’에 복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 기능을 추가했으며 체온·맥박·산소포화도 등 사용자의 바이탈 사인 측정 결과에서 생체 이상 징후나 위험이 감지될 경우 지정된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달하는 ‘푸시(PUSH)’ 기능도 새롭게 적용했다. /김승호 기자